

企劃論文

『孝經諺解』 이본에 대한 비교 연구

이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조교수, 한국어학 전공
zeezero@aks.ac.kr

I. 머리말

II. 세 이본의 구결 비교

III. 세 이본의 언해 비교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효경언해(孝經諺解)』 이본의 구결과 언해를 비교하여 각 이본이 드러내는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각 시기의 언어적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각 이본의 국어학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효경언해』의 이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만력(萬曆) 18년(1590)의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것과 강희(康熙) 5년(1666)의 내사기가 있는 것인데, 이들의 문자, 표기, 구결, 어휘에 대한 비교와 설명은 이미 안병희(1985; 1992: 462-467)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²⁾ 이 글에서는 안병희(1985; 1992)에서 논의된 『효경언해』의 두 이본에 대한 비교를 좀 더 상세하게 함과 동시에, 아직 소개된 바가 없는 다른 이본들을 함께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새로 소개하는 이본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효경언해』의 이본들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효경언해』의 이본이다.³⁾ 이들은 『효경대의(孝經大義)』의 난상(欄上) 혹은 난하(欄下)에 한문 원문에 대한 언해를 쓴 종이를 오려 붙이고, 한문 원문에 붓으로 구결을 써 넣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이본들은 모두 ‘己卯新刊 孝經 春坊藏板’이라는 지면이 있는 판본에 언해와 구결을 써 넣은 것들로

- 1) 이 글은 2011년 12월 7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에서 개최한 ‘2011년도 제3차 국내학술회의 <孝經과 孝經諺解의 再照明>’에서 『孝經諺解』 異本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이 학술회의는 『孝經』과 『孝經諺解』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역사학 분야에서는 「조선전기의 『孝經』 이해」(강문식), 「조선후기 『孝經』·『忠經』 이해와 孝治論」(우경섭)의 발표가 있었고, 서지학 분야에서는 「『孝經』 언해본의 판본과 계통 연구」(옥영정)의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효경』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역사학 분야의 연구자에게, 『효경언해』의 서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서지학 분야의 연구자에게 돌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 2) 안병희의 연구 외에도 『효경언해』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김해정과 여찬영의 연구가 있다. 김해정, 「『孝經諺解』 研究」, 『論文集』 8(우석대학교, 1986), 3-29쪽; 여찬영, 「『효경언해』의 번역비평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27(언어과학회, 2003) 197-222쪽; 여찬영, 「언해서 『효경언해』의 일 연구」, 『한국말글학』 20(한국말글학회, 2003), 99-125쪽; 여찬영, 「『효경언해』의 원문에 대한 연구」, 『어문학』 84(한국어문학회, 2004), 99-122쪽.
- 3) 이 이본들은 『효경대의』에 언해와 구결을 써 넣은 것이므로 정확하게 『효경언해』의 이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孝經』의 언해와 구결을 비교하기 위해 이들을 『효경언해』의 이본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서 19세기 후반의 것이다.⁴⁾ 이 이본들은 모두 9책으로, 奎中 1063, 奎中 1064, 奎中 1065, 奎中 1066, 奎中 1070, 奎中 1120, 奎中 1123, 奎中 1129, 奎中 1771이다. 이들 이본 간에 보이는 구결과 언해의 서체는 거의 동일하다. 구결은 구결자의 차이가 대부분이며, 언해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언해를 써 넣은 종이를 난상에 붙였느냐, 난하에 붙였느냐 하는 점과 언해와 구결을 쓴 먹의 색깔은 차이가 있다. 奎中 1063, 奎中 1066, 奎中 1771, 奎中 1123, 奎中 1120, 奎中 1070은 구결과 언해 모두 흑색 먹으로 써 넣었으며, 언해를 쓴 종이는 난하에 붙였다. 奎中 1064, 奎中 1065는 구결은 남색 먹으로, 언해는 흑색 먹으로 써 넣었으며, 언해를 쓴 종이는 난상에 붙였다. 奎中 1129는 구결과 언해 모두 흑색 먹으로 써 넣었으며, 언해를 쓴 종이는 난상에 붙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본(일산 古 1236)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이본들과 마찬가지로 『효경대의』의 원문에 구결을 써 넣고, 난상에 언해를 쓴 종이를 붙여놓은 것이다. 구결은 남색 먹으로 써 넣고 언해는 흑색 먹으로 써 넣었는데, 글씨체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이본들에 비해 유려하지 않으며 좀 더 굵게 썼다. 또한 이 이본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이본들과 달리 구결과 언해를 써 넣은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분명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⁵⁾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이본들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본을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체로 강희 5년(1666)의 내사기가 있는 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표기나 음운에서는 변화가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본에서 발견된다. 이에 비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이본들은 음운이나 표기도 강희 5년(1666)의 내사기가 있는 것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만력 18년(1590)의 내사기가 있는 것, 강희 5년(1666)의 내사기가

4) 이재영(2007: 344)에서는 ‘春坊藏板本’이 1819년(순조 19)이라고 했으나, 옥영정(2011)에 따르면 1879년(고종 16)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 이본에 구결과 언해를 써 넣은 시점은 그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5) 다만 첫 면에 19세기 말의 서화수집가였던 ‘이병직(李秉直)’의 소장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장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어도 해당 이본의 구결과 언해의 시기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렵다.

있는 것,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을 중심으로 구결과 언해의 양상을 비교해보고자 한다.⁶⁾ 규장각본은 강희 5년(1666)의 내사기가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국립도서관본과 일치하는 경우나 이들 세 이본과의 비교에서 특이한 양상이 있는 경우에만 언급하기로 한다.

세 이본의 언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만력본과 강희본은 어휘에 대한 주석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립도서관본에는 이러한 주석이 없다. 또한 언해의 시작 부분에서 『孝經』의 내용을 요약하여 언해한, ‘어버이 잘 섬김을 孝이라 하고 성인이 밍ᄃᆞᆫ신 글월을 經이라 호느니라<萬 1ᄃ, 康 1ᄃ>’은 만력본과 강희본에만 있을 뿐, 규장각본이나 국립도서관본에는 없다. 언해 양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만력본이 강희본이나 국립도서관본과 차이를 보인다. 국립도서관본이 만력본이나 강희본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예들은 표기, 음운을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크게 구결의 비교와 언해의 비교로 나누고, 언해의 비교는 다시 표기, 음운, 문법, 어휘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⁷⁾ 각 이본이 보여주는 언해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보여주는 언어 양상의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고, 간기가 분명하지 않은 국립도서관본의 언해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세 이본의 구결 비교

만력본과 강희본의 구결은 한글 구결이다. 이에 비해 국립도서관본의 구결은 한문 원문에 남색 먹으로 가필(加筆)한 음독구결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구결은 만력본의 구결이 강희본에서 수정되어 있고, 국립도서관본은 강희본에서 수정된 바를 거의 옮겨 적었다. 이러한 구결의 변화는 대체로 언해에 반영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⁸⁾ 규장각본과

6) 이 글에서는 이들 세 이본을 각각 만력본, 강희본, 국립도서관본으로 지칭하고, 약호를 <萬>, <康>, <국>으로 사용한다. 또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이본들은 규장각본으로 지칭하고 약호를 <奎>로 사용한다.

7) 이 글은 만력본에서 국립도서관본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는 경우는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언급하는 이들 이본 간에 나타나는 어떠한 경향은 구결 및 언해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8) 2장에서는 이본들이 보여주는 구결의 차이를 모두 다루지는 않는다. 구결이 달라지면

국립도서관본의 구결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간혹 자형(字形)이 다른 구결을 사용한 예가 보이기도 한다. ‘-印底’<奎>와 ‘-ㄴ P 底’<국>, ‘-黑’<奎>와 ‘-日’<국>, ‘-阿’<奎>와 ‘-牙’<국> 등이 그러한 예이다.⁹⁾

(1)은 해당 구결이 ‘ㅎ’를 포함하느냐 ‘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만력본의 구결과 강희본 및 국립도서관본의 구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예들이다. (1가)의 경우만 ‘아’를 포함한 구결에서 ‘ㅎ’를 포함한 구결로 바뀐 것이고, (1나)-(1라)는 ‘ㅎ’를 포함한 구결에서 ‘아’를 포함한 구결로 바뀐 것이다. 구결에서 ‘ㅎ’를 포함하느냐 ‘아’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구결이 기입되는 한문의 구를 동사적인 것으로 이해하느냐 명사적인 것으로 이해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인데, 각 예에서 해당되는 언해가 세 이본에서 모두 동일하게 언해된 것을 보면, 크게 주목할 만한 성격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¹⁰⁾

- (1) 가. 無怨惡 니(엍느니) → 無怨惡 ㅎ느니(엍느니)/無怨惡 ㄷ ㅌ(엍느니)
 <萬 4ㄴ, 康 4ㄴ, 국 6ㄴ>
 나. 不敢失於臣妾 ㅎ니(아니ㅎ니) → 不敢失於臣妾 이니(아니ㅎ니)/不敢失於臣妾 ㄷ ㅌ(아니ㅎ니) <萬 11ㄴ, 康 11ㄴ, 국 17ㄴ>
 다. 有爭臣七人 ㅎ면(두면) → 有爭臣七人 이면(두면)/有爭臣七人 ㅌ ㅍ(두면)
 <萬 23ㄱ, 康 23ㄱ, 국 34ㄴ>
 라. 敎民無以死傷生 ㅎ며(아니ㅎ며) → 敎民無以死傷生 이며(아니ㅎ며)/敎民無以死傷生 ㅌ ㅍ(아니ㅎ며) <萬 25ㄱ, 康 25ㄱ, 국 38ㄱ>

대부분 언해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구결의 차이는 3장에서 언해양상을 비교하면서 함께 논의할 것이다.

- 9) 여기에 예를 든 구결의 차이는 모든 규장각본에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국립도서관본과 일치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 10) 다음의 예에서 만력본의 구결 ‘ㅎ느니’는 강희본 이후 ‘니/ㅌ’로 바뀌어 있는데, 언해는 세 이본에서 같다. 이 경우 강희본과 국립도서관본의 구결은 만력본의 구결 ‘ㅎ느니’에서 ‘ㅎ느’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원래 ‘이니/ㄷ ㅌ’에서 계사 ‘아/ㄴ-’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세 이본의 구결에서 여간인 ‘ㅎ’가 생략된 경우는 있어도 ‘ㅎ느’가 생략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 구결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 생략하기도 하는 것이 구결 표기의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하더라도 『효경언해』의 세 이본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의 예는 ‘ㅎ’를 포함한 구결에서 ‘아’를 포함한 구결로 바뀐 (1나-라)의 예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 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 ㅎ느니(아니ㅎ느니) → 有爭子 ㅎ면 則身不陷於不義 니(아니ㅎ느니)/有爭子 ㅌ ㅍ 則身不陷於不義 ㅌ ㅍ(아니ㅎ느니) <萬 23ㄴ, 康 23ㄱ-23ㄴ, 국 34ㄴ-35ㄱ>

구결의 모습 ‘가’ ‘一’로 변화된 예도 보인다. 만력본의 ‘가’ 강희본에서 ‘一’로 변화하는 것은 만력본이 중세국어의 양상을, 강희본이 근대국어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2) 富貴_ㄹ(가으며름과 貴_ㅎ을) → 富貴_ㄹ(富와 貴_ㄹ를)/富貴_ㄷ(富와 貴_ㄹ를) <萬 3ㄴ, 康 3ㄴ, 國 5ㄱ>

만력본에 없던 구결이 강희본에서 삽입되어 국립도서관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긴 한문구를 적절한 구결을 삽입하여 끊어 읽는 것과 관련된다. 만력본에 구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희본이나 국립도서관본에 삽입된 구결과 같은 어미로 언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구결 삽입이 한문원문의 해석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3) 가. 嚴父嚴兄이오(아비와) → 嚴父와 嚴兄이오(아비와)/嚴父_ㄷ 嚴兄_ㄴ 五(아비와) <萬 22ㄱ, 康 22ㄱ, 國 33ㄴ>

나. 敬一人而千萬人이(공경_ㅎ애) → 敬一人_애 而千萬人이(공경_ㅎ애)/敬一人_ㄷ 而千萬人_ㄴ(공경_ㅎ애) <萬 9ㄱ, 康 9ㄱ, 國 13ㄱ>

다. 自天子已下至於庶人히(아래로) → 自天子已下_로 至於庶人히(아래로)/自天子已下_스 至於庶人_ㄷ(아래로) <萬 6ㄴ, 康 6ㄴ, 國 10ㄱ>

라. 母取其愛而君取其敬이니(취_ㅎ고) → 母取其愛_고 而君取其敬_느니(취_ㅎ고)/母取其愛_ㄷ 而君取其敬_ㄷ(취_ㅎ고) <萬 5ㄱ, 康 5ㄴ, 國 8ㄱ>

마. 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니라(이러) → 行成於內_야 而名立於後世矣니라(이러)/行成於內_ㄷ 而名立於後世矣_스(니러) <萬 21ㄴ, 康 21ㄱ, 國 32ㄱ>

바. 敬其父則子悅고(공경_ㅎ면) → 敬其父_면 則子悅고(공경_ㅎ면)/敬其父_ㄷ 則子悅_ㄷ(공경_ㅎ면) <萬 9ㄱ, 康 9ㄱ, 國 13ㄱ>

그러나 다음의 (4)처럼 강희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 삽입된 구결과 다른 어미로 만력본의 언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만력본에서는 ‘으면’으로 언해가 되었으나, 강희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는 구결 ‘_ㅎ야_ㄷ’을 반영하여 각각 ‘_ㅎ야_ㄴ/_ㅎ야_ㄴ’으로 되어 있다.

(4) 當不義則子不可以不爭於父 | 며(다드르_면) → 當不義_야 則子不可以不爭於父 | 며(當_ㅎ야_ㄴ)/當不義_ㄷ 則子不可以不爭於父_스(當_ㅎ야_ㄴ) <萬 23ㄴ, 康 23ㄴ, 國 35ㄱ>

위에서 살펴본 (1)-(4)의 예들은 만력본의 구결이 강희본 이후 바뀌어 국립도서관본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음의 (5)는 만력본과 강희본이 같은 구결을 사용하고 국립도서관본에서 다른 구결을 사용하는 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많지 않다.¹¹⁾

- (5) 가. 吾₁ 語汝₁호리라(내 너드려 닐오리라)/吾₁ 語汝₁호리라(내 너드려 닐오리라) → 吾語汝₂호스(너 너다려 닐오리라) <萬 2ㄱ, 康 2ㄱ, 국 3ㄱ>
 나. 以順天下₁라(順₁흐는디라)/以順天下₁라(順₁흐는디라) → 以順天下₂스(順₂흐는지라) <萬 10ㄱ, 康 10ㄱ, 국 14ㄴ>

(5가)는 국립도서관본에서 주격조사 ‘1’가 생략되어 있고 종결어미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생략된 ‘호스’가 사용되어 있다. (5나)는 국립도서관본에서 계사 ‘\’가 생략된 ‘스’가 사용되어 있다.

III. 세 이본의 언해 비교

1. 표기의 양상

표기의 측면에서 만력본, 강희본, 국립도서관본을 살펴볼 때, 중세국어 표기의 특징인 ‘ㅇ, ㅅ’의 사용을 제외한다면¹²⁾, 만력본과 강희본의 표기가 같고 국립도서관본에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¹³⁾ 근대국어 표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ㄷ’ 종성을 ‘ㅅ’ 종성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경우(6가) 어중의 ‘ㄷㄷ’을 ‘ㄷㅅ’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11) 규장각본에 보이는 구결은 만력본, 강희본과 같다. (5가)는 ‘吾\ 語汝\호스’로, (5나)는 각각 ‘以順天下\스’로 되어 있다.

12) ‘ㅇ, ㅅ’은 만력본에만 나타나며, 강희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 ‘ㅇ’은 ‘ㅇ’으로, ‘ㅅ’은 ‘ㅅ’으로 바뀌었다. 강희본과 국립도서관본은 언해뿐만 아니라 구결에서도 만력본의 ‘ㅅ’을 ‘ㅅ’으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

13) 표기상 오류로 보이는 예들의 경우에도 만력본과 강희본이 더 가깝고, 국립도서관본이 다르다. 만력본과 강희본에서는 정확한 표기였던 것이 국립도서관본에서 잘못 표기된 예들을 볼 수 있는데, ‘님금를<국 8ㄱ>, 숲피[察]<국 30ㄱ>, 안해과[妻]<국 33ㄴ>, 籠과<국 38ㄴ>’가 그러한 예이다. 반면, 강희본에서만 잘못 표기된 예로는 ‘빙성이[民]<康 10ㄱ>’가 있다.

경우(6나) ‘ㅂ’계 합용병서를 ‘ㅅ’계 합용병서로 바꾸어 표기하는 경우(6다)는 국립도서관본에서만 나타난다.¹⁴⁾

- (6) 가. 물ㅎ니/물ㅎ거니 → 못ㅎ거니[不] <萬 1ㄴ, 康 1ㄴ, 國 2ㄱ>
 물즙노이다/물즙노니 → 못즙노니[問] <萬 23ㄱ, 康 22ㄴ, 國 34ㄱ>¹⁵⁾
나. 벼슬로써/벼슬로써 → 벼슬노써[以其職] <萬 14ㄴ, 康 14ㄱ, 國 21ㄴ>
 날로/날로 → 날노[日] <萬 15ㄱ, 康 14ㄴ, 國 22ㄱ>
다. 떠나다/떠나다 → 썌나다[離] <萬 24ㄱ, 康 24ㄱ, 國 34ㄴ>

이 외에도 만력본과 강희본의 경음 표기가 국립도서관본에서 평음 표기로 수정된 예도 보인다.

- (7) 육홀까/육홀까 → 육홀가[辱] <萬 20ㄴ, 康 20ㄴ, 國 30ㄱ>¹⁶⁾
 아니홀썌니 → 아니홀디니[不] <康 4ㄴ-5ㄱ, 國 6ㄴ>

‘:’의 음가는 16세기에 제2음절 이하에서 먼저 소실되고 18세기 중반 이후 제1음절에서도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 과도 교정 표기는 이러한 ‘:’의 소실이 완성된 이후 나타나는 것으로 근대국어의 특징이다. 아래의 (8)과 (9)에서 보듯이 과도 교정 표기는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나타난다. (8가)는 제2음절 이하에서 과도 교정된 ‘:’가 나타나는 예이고, (8나)는 제1음절에서 ‘:’로 과도 교정된 예이다.¹⁷⁾

14) 이러한 현상이 국립도서관본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물느니라, 시절로써, 떠내디, 쓰며, 짝ㅎ시고’와 같은 예들은 만력본부터 국립도서관본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5) (6가)의 경우, 규장각본은 ‘못ㅎ거니, 못즙노니’와 같이 나타나 국립도서관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16) 이 예는 규장각본에서 ‘육홀까’로 나타나 있다. 이 예는 경음 표기를 수정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규장각본은 만력본과 강희본의 예를 따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7) 만력본과 강희본의 ‘가운데[中]’가 국립도서관본에서 ‘가운데’로 나타나는 것은 ‘:’의 과도 교정 표기가 아니라 국립도서관본의 표기가 만력본과 강희본에 비해 더 고행(古形)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력본과 강희본의 ‘가운데’가 15세기의 ‘가운데’에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력본이나 강희본에서 ‘:’가 아니었던 모음이 국립도서관본에서 ‘:’로 나타나는, ‘어버이를 → 어버이틀[親], 섬감애 → 섬감이[於事], 업스나 → 업스나[無], 죽으시매 → 죽으시미[死]’와 같은 예도 ‘:’의 과도 교정 표기와 무관하다. 이들은 조사나 어미의 결합에서 모음조화의 원칙이 흔들렸던 것과 관련이 있다. 만력본의 ‘:’가 강희본 이후 ‘:’로 나타나는 ‘더으리오 → 더으리오[加]’와 같은 예도 역시 이와 관련된다.

- (8) 가. 나타나게/나타나게 → 나타느게[顯] <萬 2ㄴ, 康 2ㄴ, 國 3ㄱ>
 곁으샤디/곁으샤디 → 곁으스디[曰] <萬 11ㄴ, 康 11ㄴ, 國 15ㄴ>
 안해과/안해과 → 안히과[妻] <萬 12ㄱ, 康 12ㄱ, 國 17ㄴ>
 빗내/빗내 → 빗닌 <萬 25ㄱ, 康 24ㄴ, 國 37ㄱ>¹⁸⁾
 보내으오며/보내며 → 보닌며[哀] <萬 25ㄴ, 康 25ㄴ, 國 38ㄴ>
 나. 내/내 → 닌[呑] <萬 2ㄴ, 康 2ㄴ, 國 3ㄱ>
 사름의게/사름의게 → 스람의게[人] <萬 3ㄱ, 康 3ㄴ, 國 4ㄱ>
 삼가문/삼가문 → 슝가문[愼] <萬 20ㄴ, 康 20ㄴ, 國 30ㄱ>

연철, 분철, 중철과 같은 표기의 양상에서도 만력본과 강희본이 좀 더 가깝고, 국립도서관본이 다르다. 만력본과 강희본에서 분철이나 연철 표기로 나타났던 것이 국립도서관본에서 중철로 나타나거나(9가) 분철 표기로 나타났던 것이 국립도서관본에서 연철로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9나).

- (9) 가. 이러툏흐니/이러툏흐디라 → 이럿툏흐디라 <萬 12ㄴ, 康 12ㄴ, 國 18ㄱ>¹⁹⁾
 큰 이/큰 이 → 큰 니[大] <萬 13ㄴ, 康 13ㄴ, 國 19ㄴ>
 그트니라/그트니라 → 갓트니라[猶] <萬 22ㄴ, 康 22ㄱ, 國 33ㄴ>
 드토논 → 닻토논[爭] <康 24ㄱ, 國 34ㄴ>
 나. 아님이/아님이 → 아니미[不] <萬 2ㄴ, 康 2ㄴ, 國 3ㄱ>
 섬김이/섬김이 → 섬기미[事] <萬 20ㄱ, 康 20ㄱ, 國 30ㄱ>

이에 비해 만력본의 표기가 강희본에서부터 바뀌어 국립도서관본에까지 이어지는 예는 상대적으로 적다. 만력본에서 자음동화를 반영한 표기가 강희본 이후 바뀌거나(10가) 분철 표기였던 것이 연철 표기로 바뀌는 예(10나)를 볼 수 있을 뿐이다.

- (10) 가. 묻줍노이다 → 묻줍노니/묻줍노니[問] <萬 13ㄱ, 康 13ㄱ, 國 19ㄴ>
 나. 들옴애 → 드르매/드르매[聽] <萬 25ㄱ, 康 25ㄱ, 國 37ㄱ>

세 이본에서 나타나는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 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18) 만력본의 해당 원문은 ‘말숨을 빗내 아니며(言不文히며)’이다.

19) 이 예는 규장각본에서 ‘이러툏흐디라’로 나타나 국립도서관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떠한 경향을 언급하기가 어렵다. 만력본의 한자 표기가 국립도서관본
부터 한글 표기로 나타나기도 하고(11가), 만력본의 한글 표기가 강희본에
서부터 한자 표기로 나타나기도 한다(11나).

- (11) 가. 百姓과/百姓과 → 빅성과 <萬 22ㄴ, 康 22ㄱ, 國 33ㄴ>
 可히/可히 → 가히 <萬 23ㄱ, 康 22ㄴ, 國34ㄱ>²⁰⁾
 나. 철의게도 → 췌의게도/췌의게도 <萬 12ㄱ, 康 11ㄴ, 國 17ㄴ>

2. 음운의 양상

음운의 측면에서 만력본, 강희본, 국립도서관본을 살펴볼 때, 음운의
차이는 자음의 변화에서보다 모음의 변화에서 더 두드러진다. 또한
만력본과 강희본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국립도서관본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다²¹⁾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음운 현상과
관련되거나 16세기 언해의 특징인 경우는 만력본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강희본과 국립도서관본의 양상이 동일하다. 다만 이에 해당되
는 예는 ‘△’의 음가 소실로 인한 ‘△>ㅅ’의 변화를 제외한다면, 아래의
(12)에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그 수는 많지 않다.

- (12) 가. 말오 → 말고/말고 <萬 23ㄴ, 康 23ㄴ, 國 34ㄴ>²²⁾
 나. 아니며 → 아니ㅎ며/아니ㅎ며 <萬 25ㄱ, 康 24ㄴ, 國 37ㄱ>
 다. 뜰디라두(雖日用三牲之養이라두) → 뜰디라도(雖日用三牲之養이라도)/
 뜰디라도(雖日用三牲之養 ㅅ ㄱ) <萬 17ㄴ, 康 17ㄴ, 國 26ㄱ>

(12가)는 중세국어에서 종성 ‘ㄱ’ 뒤에서 초성 ‘ㄱ’이 약화되던 현상과
관련된 예인데, 강희본 이후 이러한 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
다. (12나)와 (12다)는 16세기 문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20) 이 예는 규장각본에서 ‘가히’로 나타나 국립도서관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21) 이미 중세국어에서부터 나타나는 ‘너가-’와 ‘녀가-’의 공존이나 ‘ㅎ’ 종성체언의 종성
‘ㅎ’ 탈락은 세 이본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각 이본의 언어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너가-’와 ‘녀가-’의 예들을 보면, 만력본에서는 ‘너가-’로, 강희
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는 ‘녀가-’로 나타난다. ‘ㅎ’ 종성체언의 예들은 ‘하늘희/하늘희
→ 하늘의[天] <萬 10ㄱ, 康 10ㄱ, 國 14ㄱ>’, ‘우과 → 우과/우과[上] <萬 19ㄱ, 康 19ㄱ,
國 28ㄱ>’와 같이 나타난다.

22) 만력본의 해당 원문은 ‘이 엇딘 말오(是何言與오)’이다.

하나인데, 이것이 만력본에서만 반영되어 있음을 보인다. (12나)는 ‘아니ㅎ-’의 ‘ㅎ-’가 탈락되어 ‘아니’로 나타난 것이고, (12다)는 ‘-을디라두’의 예이다.

먼저 자음과 관련된 변화를 보면, 근대국어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두의 ‘ㄴ’ 추가 현상이나(13가) 구개음화(13나)가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나타난다.

- (13) 가. 일흠을/일흠을 → 닐흠을[名] <萬 2ㄴ, 康 2ㄴ, 國 3ㄱ>
 입에/입에 → 닐에[口] <萬 5ㄱ, 康 5ㄱ, 國 6ㄴ>
 일란/일란 → 닐란[事] <萬 19ㄱ, 康 18ㄴ-19ㄱ, 國 28ㄱ>
 일며/일며 → 닐며[成] <萬 10ㄴ, 康 10ㄴ, 國 14ㄴ>
 이시니/이시니 → 니시니[有] <萬 20ㄴ, 康 20ㄴ, 國 30ㄱ>
 일티/일티 → 닐티[失] <萬 23ㄴ, 康 23ㄴ, 國 34ㄴ>
 나. 어딘/어딘 → 어진[舍] <萬 24ㄱ, 康 24ㄱ, 國 34ㄴ>
 엇디/엇디 → 엇지[何] <萬 14ㄴ, 康 14ㄱ, 國 21ㄴ>
 니르디 아니ㅎ며/니르디 아니ㅎ며 → 니르지 아니ㅎ며[不言] <萬 5ㄱ, 康 5ㄱ, 國 6ㄴ>
 順ㅎ는디라/順ㅎ는디라 → 順ㅎ는지라 [順] <萬 10ㄴ, 康 10ㄴ, 國 14ㄴ>
 닐월디니/닐월디니 → 닐월지니[致] <萬 16ㄴ, 康 16ㄴ, 國 25ㄱ>

다음의 (14)도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주는데, (14가)는 ‘편안히’에서 ‘ㅎ’이 탈락한 ‘편안이’의 예이고 (14나)는 ‘아니ㅎ-’에서 ‘ㄴ’이 탈락한 ‘아이ㅎ-’의 예이다. 이 예들에 나타나는 현상은 음운 변화와 관련된다고보다 어휘 특징적인 현상이지만, 19세기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14) 가. 편안히/편안히 → 편안이[安] <萬 12ㄴ, 康 12ㄴ, 國 18ㄱ>²³⁾
 나. 아니ㅎ야/아니ㅎ야 → 아이ㅎ야 [不] <萬 6ㄱ, 康 6ㄱ, 國 8ㄱ>

모음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의 변화이다. 16세기에 제2음절 이하에서 ‘:’의 음가가 소실됨에 따라 ‘:’는 다른 모음으로 대체된다.

23) 이 예는 규장각본에서 ‘편안이’로 나타나 국립도서관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의 ‘의 변화는 만력본만 다르고 강희본과 국립도서관본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15), 만력본과 강희본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국립도서관본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16, 17).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조사나 어미에서만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조사나 어미 외에(16가, 17가) 단어 내부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16나, 17나). 또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7)의 예들이다. (17)은 ‘가 ‘ㅏ’로 변화된 예들을 보인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19세기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국립도서관본의 시기를 추정하게 하는 한 단서가 될 수 있다.

(15) 어버이를 → 어버이를/어버이를 [親] <萬 3ㄱ, 康 3ㄴ, 國 4ㄱ>
 봉양흙애는 → 養흙애는/養흙애는 [養] <萬 16ㄴ, 康 16ㄴ, 國 25ㄱ>²⁴⁾
 문줄노이다 → 문줄노니/문줄노니 [問] <萬 13ㄱ, 康 13ㄱ, 國 19ㄴ>

(16) 가. 병에늘/병에늘 → 병에는 [病] <萬 16ㄴ, 康 16ㄴ, 國 25ㄱ>
 몸을/몸을 → 몸을 [身] <萬 6ㄴ, 康 6ㄴ, 國 9ㄱ>²⁵⁾
 덕희늘/덕희늘 → 덕희는 [守] <萬 4ㄱ, 康 4ㄱ, 國 5ㄱ>
 나. ㄹᄃᄃᄃ야도/ㄹᄃᄃᄃ야도 → ㄹᄃᄃᄃ야도 [滿] <萬 5ㄱ, 康 5ㄱ, 國 6ㄴ>
 하늘희/하늘희 → 하늘희 [天] <萬 10ㄱ, 康 10ㄱ, 國 14ㄱ>
 니르리잇가/니르리잇가 → 니르리잇가 [謂] <萬 23ㄱ, 康 23ㄱ, 國 34ㄱ>
 아들을/아들을 → 아들을 [子] <萬 24ㄱ, 康 24ㄱ, 國 34ㄴ>
 아릅다운/아릅다운 → 아릅다운 [美] <萬 19ㄱ, 康 18ㄴ-19ㄱ, 國 28ㄱ>

(17) 가. 너드려/너드려 → 너다려 [汝] <萬 2ㄴ, 康 2ㄴ, 國 3ㄱ>
 나흐시니/나흐시니 → 나하시니 [生] <萬 15ㄴ-16ㄱㄴ, 康 15ㄴ, 國 24ㄱ>
 공경흐는 이는/공경흐는 이는 → 공경흐나니는 [敬] <萬 3ㄱ, 康 3ㄴ, 國 4ㄱ>
 옮기느니/옮기느니 → 옮기나니 [移] <萬 21ㄴ, 康 21ㄴ, 國 32ㄱ>
 나. 사릅의게/사릅의게 → 스릅의게 [人] <萬 3ㄱ, 康 3ㄴ, 國 4ㄱ>

‘는 18세기 중반 이후 제1음절에서도 음가가 소실되어 다른 모습으로 대체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나타난다(18).

24) 이 예는 규장각본에서 ‘養흙애는’과 같이 나타나 강희본이나 국립도서관본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25) 이 예는 규장각본에서 ‘몸을’과 같이 나타나 국립도서관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 (18) 드토디/드토디 → 다투지 [爭] <萬 17ㄱ, 康 17ㄱ, 國 26ㄱ>
 그릇나라/그릇나라 → 갓뜯나라 [猶] <萬 22ㄴ, 康 22ㄱ, 國 33ㄴ>

‘ㄷ’ 이외의 모음 변화도 일정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조사나 어미의 결합에서 보이는 모음조화의 변화 양상이고, 둘째는 ‘ㅅ, ㅈ’ 아래의 모음이 ‘y’계 상향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조사나 어미의 결합에서 모음조화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중세국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효경언해』의 세 이본에서 이 변화는 강희본 이후에서부터 나타난다. 처격조사 ‘-애, -에, -예’의 교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희본의 변화가 국립도서관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거나(19가) 만력본과 강희본이 동일하고,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예(19나)를 볼 수 있다. (20)도 (19)와 관련되는 현상인데,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어미 ‘-아도’가 ‘-어도’로 교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19) 가. 天下애 → 天下에/天下에 <萬 5ㄱ, 康 5ㄱ, 國 6ㄴ>
 性애 → 性애/性애 <萬 13ㄴ, 康 13ㄱ-13ㄴ, 國 19ㄴ>
 나. 섬김애/섬김애 → 섬김에 [事] <萬 2ㄴ, 康 2ㄴ, 國 3ㄱ>
 섬기기예/섬기기예 → 섬기기에 [事] <萬 5ㄴ, 康 5ㄴ, 國 8ㄱ>
 (20) ㄹ득ㅎ야도(行滿天下 | 라도)/ㄹ득ㅎ야도(行滿天下 | 라도) → ㄹ득ㅎ여도
 (行滿天下 ㄴ스ㄱ) <萬 5ㄱ, 康 5ㄱ, 國 6ㄴ>

‘ㅅ, ㅈ’ 아래의 모음이 ‘y’계 상향이중모음으로 교체되는 경우는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확인된다.²⁶⁾ (21가)는 ‘ㅅ’ 아래의 ‘ㅈ, ㅊ, ㅋ’가 국립도서관본 이후 각각 ‘ㅈ, ㅊ, ㅋ’로 나타난 예이고, (21나)는 ‘ㅈ’ 아래의 ‘ㄱ, ㆁ’가 국립도서관본 이후 각각 ‘ㄱ, ㆁ’로 나타난 예이다.

- (21) 가. 然後애사(然後애사)/然後애사(然後애사) → 然後애사(然後 ㄴ스 ㄱ) <萬

26) 이기문(1998: 208)에서는 근대국어 시기의 구개음화를 설명하면서, “구개음화는 실상 i, y 앞에 온 여러 자음에 다 적용되었던 것이다. 가령 ‘ㅅ’이나 ‘ㄴ’도 구개음화로 [ʃ] [ɲ]와 같은 異音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기댄다면, (21)에 보이는 변화들은 근대국어 시기에 이들 발음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표기상의 혼란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4ㄱ, 康 4ㄱ, 國 5ㄱ>

상스애논/상스애논 → 상스애논[喪] <萬 16ㄴ, 康 16ㄴ, 國 25ㄱ>

거상을/거상을 → 거상을[喪] <萬 25ㄴ, 康 25ㄴ, 國 38ㄴ>

셔르/셔르 → 셔르[相] <萬 19ㄱ, 康 19ㄱ, 國 28ㄱ>

세/세 → 세[三] <萬 17ㄴ, 康 17ㄱ, 國 26ㄱ>

나. 저혜니/저허흠이니 → 저허흠이니[僞] <萬 20ㄴ, 康 20ㄴ, 國 30ㄱ>

중요로운 → 중요로운[要] <康 9ㄴ, 國 13ㄴ>

다음의 예들은 어떠한 경향을 말하기 어려운, 매우 특징적인 경우들이다. 이들 변화는 모두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나타난다. (22가)는 ‘비룻-’의 제2음절 모음 ‘-’가 ‘ㄱ’로 변화된 예이고, (22나)는 ‘님균’의 제2음절 모음 ‘-’가 ‘ㅏ’로 변화된 예이다. (22다)는 계사 뒤에서 ‘ㄱ’이 약화된 ‘이오’가 국립도서관본 이후 계사 뒤에서 [y]가 첨가되어 ‘요’로 나타난 예이다.

(22) 가. 비룻고/비룻고 → 비룻고[始] <萬 2ㄴ, 康 2ㄴ, 國 3ㄱ>

나. 님균/님균 → 님균[君] <萬 8ㄱ, 康 7ㄴ, 國 11ㄴ>

다. 아니흠이오(不忘親也 | 오)/아니흠이오(不忘親也 | 오) → 아니흠이요(不忘親也 | ㅕ) <萬 20ㄴ, 康 20ㄴ, 國 30ㄱ>

3. 문법의 양상

문법의 측면에서 만력본, 강희본, 국립도서관본을 살펴볼 때, 변화의 양상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부정서술어의 변화이고, 둘째는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요소의 변화이며, 셋째는 구문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세 이본에서 나타나는 문법의 변화는 강희본에서 시작되어 국립도서관본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부정서술어의 변화, 선어말어미 ‘-오-’의 탈락은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²⁷⁾

27) 이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도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예들이다. 이 예들의 공통된 특징은 만력본과 강희본의 언해 부분을 생략했다는 점이다. (가)는 반복되는 구에 대한 언해를 생략한 것이고, (나)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孝’ 아래에서 계사를 생략한 예이다.

가. 이 엇딘 말오 이 엇딘 말오(是何言與오 是何言與오)/이 엇딘 말고 이 엇딘 말고(是何

부정서술어의 변화는 강희본에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23가), 국립도서관본에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23나). 부정서술어의 변화는 해당 원문의 해석과 관련되는 것으로 언어적 요소의 통시적 변화와는 무관하다. (23다)는 선어말어미 ‘-오’가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탈락된 예이다.

- (23) 가. 敢히 넙디 물흐며(不敢服_흐며) → 敢히 넙디 아니흐며(不敢服_흐며)/
 敢히 넙디 아니흐며(不敢服_흐며) <萬 4ㄴ, 康 4ㄴ, 국 6ㄴ>
 나. 례도를 지에_흐디 아니며(禮無容_흐며)/례도를 容티 아니흐며(禮無容_흐며) → 례도를 容티 말며(禮無容_흐며) <萬 25ㄱ, 康 24ㄴ, 국 37ㄱ>28)
 다. 敢히 물좁노이다/敢히 물좁노니 → 敢히 못좁노니 [敢問] <萬 23ㄱ, 康 22ㄴ, 국 34ㄱ>29)

위의 (23)에서 살펴본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든 문법의 변화는 강희본에서부터 시작되며 국립도서관본에서 이어지는 경우이다. 먼저 조사가 변화되는 경우를 보자. 처격조사 ‘-에, -에, -에’의 결합은 선행 명사의 음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들 간의 변화는 강희본에서부터 나타나기도 하고, 국립도서관본에서부터 나타나기도 한다.³⁰⁾ 그러나 이들 처격조사가 ‘-의’로 나타나는 것은 국립도서관본만 확인되며³¹⁾,

言與오 是何 言與오) → 이 엇딘 말고(是何言與_오 是何言與_오) <萬 23ㄴ, 康 23ㄴ, 국 34ㄴ>

나. 孝₁며 梯의 지극흠이(孝梯之至₁)/孝₁며 梯의 지극흠이(孝梯之至₁) → 孝₁며 梯의 지극흠이(孝梯之至₁) <萬 20ㄴ, 康 20ㄴ, 국 30ㄱ>

28) 이 예는 규장각본에서 ‘례도를 용티 말며’로 나타나 국립도서관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29) 이 예는 규장각본에서 ‘敢히 못좁노니’로 나타나 국립도서관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30) 앞의 예문 (19) 참조.

31) 처격조사 ‘-에’가 ‘-의’로 변화한 다음의 예는 다른 경우와 달리 강희본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예에서 보이는 변화는 (24)의 예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모습은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가)처럼 만력본이나 강희본 모두 ‘-의’로 나타나지만, 5장부터 마지막 장인 14장까지는 (나)처럼 만력본의 ‘-에’가 강희본에서 ‘-의’로 교체되어 있다. 아래의 (나)에서 보이는 ‘-에>-의’의 변화를 (24)와 마찬가지로 만력본의 처격조사 ‘-에’가 ‘-의’로 교체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만력본에서 처격조사 ‘-에’로 언해되었던 것이 강희본에서 관형격조사 ‘-의’로 언해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양쪽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예와 다른 문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처격조사 ‘-에’가 ‘-의’로 변화한 예가 강희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가. 傳의 첫 章이니 = 傳의 첫 章이니(傳之首章이니) <萬 8ㄱ, 康 8ㄱ>

이것은 근대국어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24가)는 처격조사 ‘-에, -에, -에’가 ‘-의’로 변화한 예이고, (24나)는 비교격 조사 ‘-에서’가 ‘-의서’로 변화한 예이다.

- (24) 가. 宗廟에/宗廟에 → 宗廟의 <萬 20ㄴ, 康 20ㄴ, 국 30ㄱ>
 天下에/天下에 → 天下의 <萬 5ㄱ, 康 5ㄱ, 국 6ㄴ>
 이에/이에 → 이의[是] <萬 10ㄱ, 康 10ㄱ, 국 14ㄱ>
 나. 孝에서 더으니 업스니잇가(無以加於孝乎 | 잇가)/孝에서 더으니 업스
 니잇가(無以加於孝乎 | 잇가) → 孝의서 더으니 업스니잇가(無以加於
 孝乎 ~ ㄷ 可) <萬 13ㄱ, 康 13ㄱ, 국 19ㄴ>

다음의 (25가)는 관형격 조사 ‘-시’이 ‘-의’로 변화된 경우이고, (25나)는 우등비교구문의 비교격 조사가 ‘-에서’에서 ‘-만’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 (25) 가. 아버트 기결마다 → 아버트 슈을/아버트 슈을 [父之슈] <萬 23ㄱ, 康 22ㄴ,
 국 34ㄱ>
 나. 孝에서 도흐니 업고(莫善於孝 | 오) → 孝만 슈흐니 업고(莫善於孝 |
 오)/孝만 슈흐니 업고(莫善於孝 ~ ㅕ) <萬 8ㄴ, 康 8ㄴ, 국 12ㄴ>

(25)의 예들은 문맥에서 같은 기능을 가지면서도 형태가 다른 조사의 대체로 볼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조사를 바꿈으로써 그 의미 표현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26)은 만력본의 조사 ‘-마다’를 강희본 이후부터 ‘-을’로 바꾼 것이다. ‘-마다’와 ‘-을’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로 인해 만력본의 언해는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하나 다 따른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 (26) 아버트 기결마다 조침이 쏘 엇디 시러곰 孝 | 되리오(從父之슈이 又焉得爲
 孝乎 | 리오) → 아버트 슈을 조침이 쏘 엇디 시러곰 孝 | 되리오(從父之
 슈이 又焉得爲孝乎 | 리오)/아버트 슈을 조침이 쏘 엇지 시러곰 孝 | 되리
 오(從父之슈 ~ 又焉得爲孝乎 ~ ㅅ ㅕ) <萬 24ㄴ, 康 24ㄱ, 국 35ㄱ>

조사를 바꿈으로써 의미 표현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음의 (27)도 같다. (27가)는 만력본의 주격조사 ‘-이’를 강희본 이후 주제의 보조사

- 나. 傳에 다섯갓 후이니 → 傳의 다섯갓 후이니(傳之五후이니) <萬 15ㄱ, 康 15ㄱ>

‘은’으로 바꾼 예이고, (27가)는 만력본의 ‘은’을 강희본 이후 ‘이’로 바꾼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해당 구문에서 ‘이’를 사용한 경우보다 ‘은’을 사용한 경우가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볼 수 있다. (27나)는 만력본에서 처격조사 ‘에’로 표현되었던 것을 강희본 이후 ‘은’으로 바꿈으로써 해당 구가 가지는 주제적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다.

(27) 가. 君子의 孝로써 그르침이 집마다 니르러 날마다 보는 거시 아니라 (曰君子之教以孝也 | 非家至而日見之也 | 라) → 君子의 孝로써 그르침은 집마다 니르러 날마다 보는 거시 아니라(君子之教以孝也는 非家至而日見之也 | 라)/君子의 孝로써 그르침은 집마다 니르러 날마다 보는 거시 아니라(君子之教以孝也 ㄷ P 非家至而日見之也 ㄴ스) <萬 7ㄴ, 康 7ㄴ, 국 11ㄴ>

가. 안해와 증식과 가신과 첩은 百姓과 徒役 ㄱ트니라(妻子臣妾은 猶百姓徒役也 | 나라) → 안해와 증식과 臣과 妾이 百姓과 徒役 ㄱ트니라(妻子臣妾이 猶百姓徒役也 | 나라)/안해와 증식과 臣과 妾이 百姓과 徒役 ㄱ트니라(妻子臣妾 ㄴ 猶百姓徒役也 ㄴ스) <萬 22ㄴ, 康 22ㄱ, 국 33ㄴ>

나. 孝子の 어버이를 거상함애 우롬을 기리 혀디 아니며 [...] 맛난 거슬 먹음애 들게 녀기디 아니흐느니(孝子之喪親애 哭不偯며 [...] 食旨不甘흐느니) → 孝子の 어버이를 거상함은 우롬을 偯디 아니흐며 [...] 맛난 거슬 먹음애 들게 녀기디 아니흐느니(孝子之喪親은 哭不偯며 [...] 食旨不甘흐느니)/孝子の 어버이를 거상함은 우롬을 偯디 아니흐며 [...] 맛난 거슬 먹음애 들게 녀기디 아니흐느니(孝子之喪親 P 哭不偯 ㄴ스 [...] 食旨不甘 ㄴ스) <萬 24ㄴ-25ㄱ, 康 24ㄴ-25ㄱ, 국 37ㄱ>

어미의 경우도 강희본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국립도서관본에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어미에서 보이는 변화는 구문 인식에 대한 변화, 즉 구문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반영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8)은 강희본 이후 어미가 교체되어 국립도서관본에까지 이어지는 예들인데, 이러한 어미 교체가 구문에 대한 해석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28가)는 수사의문문의 어미 ‘에썌여’가 강희본 이후부터 의문조사 ‘가로 나타난 예이다. (28나)는 명사형어미 ‘음’이 강희본 이후부터 ‘음’으로 변화된 예이다. (28다)는 연결어미 ‘오디’가 강희본 이후부터 ‘으되’로 변화된 예이다.³²⁾ (28라)는 선어말어미 ‘습’이 강희본 이후 탈락된 예이다.(29나).³³⁾

(28) 가. 흐물며 士와 帑성_에썌여(而況於士民乎여) → 흐물며 士과 帑성가(而況於士民乎가)/흐물며 士과 帑성가(而況於士民乎가) <萬 11ㄴ, 康 11ㄴ, 국 16ㄴ>

나. 아뵈 괴겔마다 조츄이 썌 엇디 시러곰 孝 | 되리오(從父之令이 又焉得爲孝乎 | 리오) → 아뵈 슈을 조츄이 썌 엇디 시러곰 孝 | 되리오(從父之令이 又焉得爲孝乎 | 리오)/아뵈 슈을 조츄이 썌 엇지 시러곰 孝 | 되리오(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曰 ㅅ) <萬 24ㄴ, 康 24ㄴ, 국 35ㄴ>

다. 뵈 어미를 썌교되(以事母호되) → 뵈 어미를 썌기되(以事母호되)/뵈 어미를 썌기되(以事母호되) <萬 5ㄴ, 康 5ㄴ, 국 8ㄴ>

라. 슬허 보내오으며(哀而送之호며) → 슬허 보내며(哀而送之호며)/슬허 보내며(哀而送之호며) <萬 25ㄴ, 康 25ㄴ, 국 38ㄴ>

(28)의 예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어미 변화는 구문에 대한 해석의 변화와 관련된다. 선어말어미의 ‘사’의 경우 강희본 이후 탈락된 예들이 나타나는데(29), 이는 ‘사’로써 존대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력본의 언해에서 보이는 ‘사’가 강희본 이후에 탈락되는 현상은 있어도, 그 역의 변화는 없다.

(29) 가. 나라홀 다스리는 이 敢히 홀아비며 홀어미에도 업슈이 너기디 아니 흐시니 [...] 그 몬젓 님금을 썌기시며(治國者 | 不敢侮於鰥寡호시니 [...] 以事其先君호시며) → 나라홀 다스리는 이 敢히 鰥이며 寡에도 업슈이 너기디 아니 흐니 [...] 그 先君을 썌기며(治國者 | 不敢侮於鰥寡 | 니 [...] 以事其先君호며)/나라홀 다스리는 이 敢히 鰥이며 寡에도 업슈이 너기지 아니 흐니 [...] 그 先君을 썌기며(治國者 不敢侮於鰥寡 ㅅ [...] 以事其先君호며) <萬 11ㄴ, 康 11ㄴ, 국 16ㄴ>

32) 그러나 강희본과 국립도서관본의 구결에서는 여전히 만력본과 같은 ‘-호되, 호되’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효경언해』의 세 이본에서 구결의 조사나 어미는 언해의 조사나 어미와 대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강희본과 국립도서관본의 구결에서 ‘-오되>-오되’의 예만큼은 만력본과 같이 고형(古形)을 보인다.

33) 중세국어에서 객체존대의 선어말어미였던 ‘-습-’이 근대국어 이후 겸양법의 선어말어미로 기능이 변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28라)에 나타난 변화는 ‘-습-’의 기능 변화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습-’의 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다음의 예와 같이 만력본, 강희본, 국립도서관본 모두에서 ‘-습-’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參이 니르심을 듣즈앗습거니와(參이 聞命矣어니와)/參이 命을 듣즈앗습거니와(參이 聞命矣어니와)/參이 命을 듣즈앗습거니와(參 聞命矣호되) <萬 23ㄴ, 康 22ㄴ, 국 34ㄴ>

나. 天子 | [...] 그 天下를 일터 아니하시고 諸侯 | [...] 그 나라를 일터 아니하시고(天子 | [...] 不失其天下하시고 諸侯 | [...] 不失其國하시고) → 天子 | [...] 그 天下를 일터 아니하고 諸侯 | [...] 그 나라를 일터 아니하고(天子 | [...] 不失其天下하고 諸侯 | [...] 不失其國하고/天子 | [...] 그 天下를 일터 아니하고 諸侯 | [...] 그 나라를 일터 아니하고(天子 ~ [...] 不失其天下ㄴ 諸侯 ~ [...] 不失其國ㄴ) <萬 23ㄴ-24ㄴ, 康 23ㄴ, 國 34ㄴ>

(29가)는 ‘불궤신 님금[明王], 나라를 다스리는 이[治國者], 집을 다스리는 이[治家者]’에 대해 비교하는 맥락에 나타난 ‘나라를 다스리는 이에 대한 예이다. 세 이본에서 ‘불궤신 님금’의 경우는 모두 ‘사’가 쓰이고 ‘집을 다스리는 이’의 경우는 모두 ‘사’가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이에 대해서는 강희본 이후 ‘사’가 탈락되는 모습을 보인다. (29나)는 ‘天子, 諸侯, 태우[大夫], 土, 아버지[父]’에 대해 비교하는 맥락에 나타난 ‘天子, 諸侯’에 대한 예이다. 만력본에서는 ‘天子, 諸侯’에 대해서 ‘사’를 쓰고, 그 아래에 대해서는 ‘사’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강희본 이후 모든 예에 대해서 ‘-사-’를 쓰지 않고 있다.

연결어미의 경우도 강희본에서 변화가 시작되어 국립도서관본에까지 이어진다. 아래의 (30)에서 보듯이 연결어미의 변화는 대체로 구문에 대한 해석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0) 가. 四海에 법이 되느니(刑于四海하느니) → 四海에 법이 되리니(刑于四海하리니)/四海에 법이 되리니(刑于四海ㄴㄷ) <萬 3ㄴ, 康 3ㄴ, 國 4ㄴ>

가. 敢히 行티 못하느니(不敢行하느니) → 敢히 行티 아니할씨니(不敢行이니)/敢히 行티 아니할디니(不敢行ㄴㄷ) <萬 5ㄴ, 康 4ㄴ-5ㄴ, 國 6ㄴ>

나. 그 簠과 簋를 버리고 슬허 설위하며(陳其簠簋而哀感之하며) → 그 簠과 簋를 버려 슬허하며(陳其簠簋하야)/그 簠과 簋를 버려 슬허하며(陳其簠簋ㄴ) <萬 26ㄴ, 康 25ㄴ-26ㄴ, 國 38ㄴ>

다. 能히 그 社稷을 안보하야 그 帑성을 和케 하느니(能保其社稷하야 而和其民人하느니) → 能히 그 社稷을 안보하며 그 帑성을 和케 하리니(能保其社稷하야 而和其民人하리니)/能히 그 社稷을 안보하며 그 帑성을 和케 하리니(能保其社稷ㄴ 而和其民人ㄴ) <萬 4ㄴ, 康 4ㄴ, 國 5ㄴ>

- 라. 공경하는 배 적오디 깃거홀 이 만흐니(所敬者 | 寡호디 而悅者 | 衆호니) → 공경하는 배 적고 깃거홀 이 만흐니(所敬者 | 寡 | 오 而悅者 | 衆호니)/공경하는 배 적고 깃거홀 니 만흐니(所敬者 | 寡 五 而悅者 | 衆호니) <萬 9ㄴ, 康 9ㄴ, 국 13ㄴ>
- 마. 비록 道 | 업슬디라도(雖無道 | 라도) → 비록 道 | 업스나(雖無道 | 나)/비록 道 | 업스나(雖無道 | 那) <萬 23ㄱ, 康 23ㄴ, 국 35ㄱ>

(30가)는 만력본에서는 단순한 서술인 ‘느니’로 표현되었던 것을 강희본 이후 당위 표현인 ‘리니’(30가) 혹은 ‘을디니’(30가)로 교체한 예이다. (30나)는 만력본의 어미 ‘고’를 강희본 이후 ‘야’로 바꿈으로써 선행절과 후행절의 선후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였고, (30다)는 만력본의 어미 ‘아’를 강희본 이후 ‘며’로 바꿈으로써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등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30라)는 만력본의 ‘오디’를 강희본 이후 ‘고’로 바꾼 예로서, 만력본의 경우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역접관계가 좀 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30마)는 만력본의 양보 연결어미 ‘을디라도’를 강희본에서 역접의 ‘으나’로 바꿈으로써 역접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다음의 (31)에 제시한 예도 강희본 이후 연결어미가 교체되었다는 점에서는 위의 (30)과 같지만, 그 의미 표현 효과는 (30)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다.

- (31) 가. 參이 민달티 몰흐니 엇디 足히 卞 알리잇고(參이 不敏호니 何足以知之리잇고) → 參이 敏티 몰흐거니 엇디 足히 卞 알리잇고(參이 不敏이어니 何足以知之리잇고)/參이 敏티 못흐거니 엇디 足히 卞 알리잇고(參 | 不敏 | ㅅ호니 何足以知之日 | ㅁ호) <萬 1ㄴ, 康 1ㄴ, 국 2ㄱ>
- 나. 죽으시거든 섬교디 슬허하며 설위홈으로 홈애(死事哀感애) → 죽으시매 섬기되 슬허홈애(死事哀感애)/죽으시면 섬기되 슬허홈애(死事哀感애) <萬 26ㄴ, 康 26ㄴ, 국 39ㄴ>
- 다. 나아가는 통성 다홈을 싱각하며(進思盡忠하며) → 나아가면 통성을 다홈을 싱각하며(進思盡忠하며)/나아가면 통성을 다홈을 싱각하며(進思盡忠호) <萬 19ㄱ, 康 18ㄴ, 국 28ㄱ>
- 다. 사라시면 어버이 편안히 너기시고(生則親이 安之호고) → 사라셔는 어버이 편안히 너기시고(生則親이 安之호고)/사라셔는 어버이 편안히 너기시고(生則親 | 安之호) <萬 12ㄴ, 康 12ㄴ, 국 18ㄱ>

(31가)는 만력본의 연결어미 ‘-으니’가 강희본 이후 ‘-거니’로 교체된 예이다. (31나)는 만력본의 ‘-거든’을 강희본 이후 ‘-으매/으미’로 바꾼 예이다. ‘-거든’과 ‘-으매’가 모두 상황 제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주는 표현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31다)는 만력본의 ‘-어느’을 강희본 이후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으로 바꾸었고, (31다)은 그 역의 변화를 보인다. 이 경우 역시 어미의 변화가 주는 표현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종결어미의 경우 만력본의 ‘-느니라’가 강희본 이후 ‘-느니라’로 바뀐 예가 보인다(32가). 각 장의 끝에서 해당 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³⁴⁾, 만력본에서는 어미 ‘-으니라’가 사용된 반면, 강희본에서는 ‘-다가 사용되었다(32나). 이것은 일반적인 서술에서 이른바 절대문의 어미가 사용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사용된 만력본의 ‘-으니라’는 모두 강희본에서 ‘-다’로 바뀌어 있다.

(32) 가. 나타나느니라(著矣니라) → 나타나느니라(著矣라)/나타나느니라(著矣스) <萬 20ㄴ, 康 20ㄴ, 국 30ㄱ>

나. 지극한 德으로써 天下를 順함을 사기니라(釋至德以順天下호니라) → 지극한 德으로써 天下를 順함을 사기다(釋至德以順天下호다) <萬 8ㄱ-8ㄴ, 康 8ㄱ>

명사형어미와 관련된 것으로는 만력본에서 명사형 구성이 아니었던 것을 강희본 이후 명사형 구성으로 달리 언해한 경우가 있다.

(33) 가. 卩 父母를 치느니 이 庶人之 孝 | 라(以養父母호느니 此 | 庶人之孝也 | 라) → 卩 父母를 치이 이 庶人之 孝 | 라(以養父母 | 此 | 庶人之孝也 | 라)/卩 父母를 치이 이 庶人之 孝 | 라(以養父母 ~ 此 ~ 庶人之孝也 ~ 스) <萬 6ㄴ, 康 6ㄴ, 국 9ㄱ>

나. 조상을 욱할까 저혜니(恐辱先也 | 니) → 조상을 욱할까 저허흠이니(恐辱先也 | 니)/조상을 욱할까 저허흠이니(恐辱先也 ~ ㄷ) <萬 20ㄴ, 康 20ㄴ, 국 30ㄱ>

다. 孝子의 아버이 섬김이 끝느니라(孝子之事親이 終矣니라) → 孝子의

34)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규장각본이나 국립도서관본에서 언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아버이 섬김이 몬출이니라(孝子之事親(이) 終矣니라)/孝子の 아버지
 섬김이 몬출이니라(孝子之事親 終矣ヒス) <萬 26ㄴ, 康 26ㄴ, 國
 39ㄴ>

라. 죽으며 사라질 겻 도리 마즈니(死生之義 | 備矣니) → 죽으며 살음
 의 義 마즈니(死生之義 | 備矣니)/죽으며 살음의 義 마즈니(死生之義
 備矣ヒ) <萬 26ㄴ, 康 26ㄴ, 國 39ㄴ>

라'. 孝子の 아버지 섬김에 겨실 제는 그 공경을 날위고(孝子之事親애
 居則致其敬호고) → 孝子の 아버지 섬김에 居홈애는 그 공경을 날
 위고(孝子之事親애 居則致其敬호고)/孝子の 아버지 섬김에 居홈애는
 그 공경을 날위고(孝子之事親애 居則致其敬호고) <萬 16ㄴ, 康 16ㄴ,
 國 25ㄱ>

마. 님금 섬김에 가온댄 줄을 사기니라(釋中於事君호니라) → 님금 섬김
 애 가온대 홈을 사기다(釋中於事君호다) <萬 19ㄴ, 康 19ㄱ>

(33가)는 만력본에서 ‘으니’에 의한 접속 구문으로 이해한 것을 강희본
 이후 명사형으로 바꾸어 비접속 구문으로 달리 언해한 것이다. 따라서
 만력본에서는 두 절의 결합으로 이해하였지만, 강희본 이후의 언해에서
 는 하나의 절로 이해됨으로써 ‘이[此]가 중복적인 성분인 것처럼 표현되었
 다. 강희본 이후의 이러한 변화는 근대국어의 언해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상 중 하나로서 ‘是, 此’에 대한 번역인 ‘이’를 직역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주어 성분의 중복된 것으로 느끼게 한다. (33나)는 만력본에
 서 ‘잘’에 연결어미 ‘-어’를 결합시킨 예를 강희본 이후 명사형어미
 ‘-음’을 결합시킨 것으로 바꾼 것이고, (33다)는 만력본에서 ‘못’에 종결어
 미를 결합시킨 예를 강희본 이후 명사형어미 ‘-음’을 결합시킨 것으로
 바꾼 것이다.³⁵⁾ (33라, 라’)와 (33마)는 만력본에서 관형절 구성으로
 언해된 것을 강희본 이후 명사형 구성으로 바꾸어 언해한 것이다.³⁶⁾

35) 중세국어라면 ‘-음’과 ‘-음’은 각각 명사형어미와 명사파생접미사로 구분될 수 있으나,
 것이나, 근대국어 이후 명사형어미 ‘-음’의 쇠퇴와 해당 문맥을 고려하여, 강희본 이후
 나타나는 (33다)의 ‘-음’과 (33라, 라’)의 ‘-음’을 모두 명사형어미로 파악하였다.

36) 다음의 예도 (33라, 라’)과 유사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만력본에서 관형절 구성인 ‘을
 제’로 언해한 것을 강희본 이후 ‘NP-에’로 달리 언해하였다. 이것은 만력본에서는 ‘郊’를
 동사적인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강희본 이후 명사적인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나타
 난 차이로 볼 수 있다. ‘周公이 쳐홀 제 后稷을 제호사(周公이 郊祀后稷호사) → 周公이
쳐에 后稷을 제호사(周公이 郊祀后稷호사)/周公이 쳐에 后稷을 제호사(周公 郊祀后稷
 호사) <萬 14ㄱ, 康 14ㄱ, 國 21ㄴ>’

마지막으로 어미를 바꿈으로써 절의 관계가 달라지는 예들을 보자. 이러한 예로는 관형절 구성이었던 것을 종결어미와 결합시킴으로써 두 절의 연속으로 바꾸거나(34가) 연결어미와 결합되었던 것을 종결어미로 바꾸거나(34나, 나) 종결어미와 결합되었던 것을 연결어미로 바꾼 경우(34다, 다)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모든 변화는 강희본에서부터 나타나며 국립도서관본은 강희본의 언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4) 가. 孝훈 故로(孝故로) → 孝훈디라 故로(孝 | 라 故로)/孝훈디라 故로(孝
 \스 故又) <萬 20ㄱ, 康 20ㄱ, 국 30ㄱ>

나. 禮란 거슨 공경흐 쓰르미니 故로 그 아비를 공경흐면 조식이 깃
 거흐고 그 뉘을 공경흐면 아이 깃거흐고 그 님금을 공경흐면 신해
 깃거흐느니(禮者는 敬而已矣니 故로 敬其父則子悅흐고 敬其兄則弟悅
 흐고 敬其君則臣悅흐느니) → 禮란 거슨 공경흐 쓰름이라 故로 그
 아비를 공경흐면 조식이 깃거흐고 그 뉘을 공경흐면 아이 깃거흐고
 그 님금을 공경흐면 신해 깃거흐느니(禮者는 敬而已矣라 故로 敬其
 父흐면 則子悅흐고 敬其兄흐면 則弟悅흐고 敬其君흐면 則臣悅흐
 느니)/禮란 거슨 공경흐 쓰름이라 故로 그 아비를 공경흐면 조식이
 깃거흐고 그 뉘을 공경흐면 아이 깃거흐고 그 님금을 공경흐면 신
 해 깃거흐느니(禮者는 敬而已矣스 故又 敬其父\面 則子悅\古
 敬其兄\面 則弟悅\古 敬其君\面 則臣悅\는비) <萬 9ㄱ-9ㄴ,
 康 9ㄱ-9ㄴ, 국 13ㄱ-13ㄴ>

나. 이러툃흐니(如此흐니) → 이러툃흐디라(如此 | 라)/이러툃흐디라(如此
 \스) <萬 12ㄴ, 康 12ㄴ, 국 18ㄱ>

다. 卩 天下에 사름의 님금 되엿는 이를 공경흐는 배니라(所以敬
 天下之爲人君者 | 니라) → 卩 天下에 사름의 님금 되엿는 이를 공
 경흐는 배니(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 | 니)/卩 天下에 사름의 님금 되엿
 는 이를 공경흐는 배니(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는비) <萬 8ㄱ, 康 7ㄴ
 -8ㄱ, 국 11ㄴ>

다. 敢히 문좁노이다 聖人の 德이 그 卩 孝에서 더으니 업스니잇가(敢
 問聖人之德이 無以加於孝乎 | 잇가) → 敢히 문좁노니 聖人の 德이
 그 卩 孝에서 더으니 업스니잇가(敢問聖人之德이 無以加於孝乎 | 잇
 가)/敢히 문좁노니 聖人の 德이 그 卩 孝의서 더으니 업스니잇가
 (敢問聖人之德\ 無以加於孝乎\는비) <萬 13ㄱ, 康 13ㄱ, 국 19ㄴ>

마지막으로 변화의 양상이 조금은 이질적인 측면이 있으나 만력본의 언해가 강희본 이후 달라져 국립도서관본에까지 이어지는 예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35가)는 만력본의 V-으로 흠을 강희본 이후 V-흠'으로 달리 언해한 것이다. (35나, 다)는 만력본에서 없던 언해 부분을 강희본 이후 추가한 것인데, (35나)는 '이'에 대한 언해로 '뵈'를 추가하고 있으며 (35다)는 만력본에서 없던 목적격조사 '-을'을 강희본 이후 추가한 것이다.

- (35) 가. 죽으시거든 섬교되 슬허하며 설위흠으로 흠애(死事哀感애) → 죽으시매 섬기되 슬허흠애(死事哀感애)/죽으시미 섬기되 슬허흠애(死事哀感애) <萬 26ㄴ, 康 26ㄴ, 國 39ㄴ>
- 나. 이리모로(是以로) → 이리모로 뵈(是以로)/이리모로 뵈(是以로) <萬 10ㄴ, 康 10ㄴ, 國 14ㄴ>
- 다. 나아가는 통성 다흠을 싱각하며(進思盡忠하며) → 나아가면 통성을 다흠을 싱각하며(進思盡忠하며)/나아가면 통성을 다흠을 싱각하며(進思盡忠하며) <萬 19ㄱ, 康 18ㄴ, 國 28ㄱ>

4. 어휘의 양상

어휘의 측면에서 만력본, 강희본, 국립도서관본을 살펴볼 때, 만력본의 어휘가 강희본 이후 변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³⁷⁾ 만력본의 어휘와 강희본의 어휘가 같고, 국립도서관본에서만 달라진 경우는 '좃- → 服하-[服]'뿐이다.

만력본의 어휘가 강희본 이후 달라진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고유어가 다른 고유어로 대체된 경우(36), 둘째는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된 경우(37), 셋째는 한자어가 다른 한자어로 대체된 경우(38), 넷째는 한자어가 고유어로 대체된 경우(39)이다. 이 네 유형 중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된 유형이 가장 많다.

- (36) 가. ㅅ- → 받줍-[受], 그르ㅎ- → 잃-[失]³⁸⁾, 외다 → 그르다[非], 물러

37) 만력본, 강희본, 국립도서관본의 세 이본에서 보이는 어휘의 양상을 비교하는 경우, 지면 관계상 해당 원문의 형태를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어간 형태를 추출하여 제시하며, 해당 형태가 나타나는 출전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38)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敢히 가신과 첩의게도 그르 아니ㅎ니(不敢失於臣妾ㅎ니) → 敢히 臣과 妾의게도 일티 아니ㅎ니(不敢失於臣妾이니)/敢히 臣과 妾의게도 일티

오- → 무르- [退], 간스- → 감초- [藏], 겨사- → 이사- [有], 쩡-
→ 저허- [恐], 넘구- → 디나- [過]
나. 다섯 것 → 다섯 가지 [五者], 젊은이 → 어린이 [幼]
다. 처음 → 비로숨 [始], 키 → 크게 [大],
라. 슬허 설위- → 슬허- [哀感], 슬허하며 설위- → 슬허- [哀感]

(37) 가. 업슈어- → 뉘- [慢], 아쳐- → 악- [惡], 니러나- → 작-
[作], 짝- → 짝- [配], 디너- → 임- [臨], 거슥즈- → 쉰-
[棼], 겨사- → 거- [居], 받즈- → 장- [將], 즈셔- → 찰-
[察], 지에- → 용- [容], 이반- → 향- [享], 다드르- → 당-
[當], 라온 君子 → 앙희 君子 [愷悌君子], 값- → 안평- [安厝],
도- → 선- [善]

나. 울- → 울며 泣야 [哭泣]
다. 어딘 ㄹ림 → 덕교 [德教], 몬것 남금 → 선군 [先君], 분묘 터 →宅
兆 [宅兆], 해로운 일 → 해 [害], 어즈러운 일 → 난 [亂], 법다운 옷 →
법의 옷 [法服], 법다운 말씀 → 법의 말씀 [法言], 가으며름 → 부 [富],
홀아비 → 홀 [寡], 홀어미 → 홀 [寡], 목숨 → 성 [性], 뜯 → 정 [情],
가신 → 신 [臣], 니르심 → 명 [命], 괴걸 → 승 [令], 도리 → 의 [義]
라. 죄 낚 → 형벌- [刑], 식식이 - → 흉- [肅], 어즈러이 - →
난- [亂], 병잡개예 해 히어- → 병- [兵], 기리 혀- → 의- [儀],
가슴 두드리- → 뺨- [擗], 발 구르- → 뚱- [踊]

(38) 가. 화동- → 화- [和], 민달- → 민- [敏], 봉양- → 양-
[養], 엄숙- → 엄- [嚴], 패망- → 망- [亡], 순종- → 순
- [順], 요절- → 중요- [要], 정- →匡- [匡]

나. 음악 → 악 [樂], 례도 → 례 [禮], 지변 →災 [災], 화환 →禍 [禍], 가
신 → 신 [臣], 귀흙 → 귀 [貴], 례절 → 례도 [禮], 후 → 然後 [然後],
음악 → 풍뉴 [樂]

다. 처- → 처에 제사 [郊祀]³⁹⁾

(39) 간- → 다투- [爭]

아니- (不敢失於臣妾) <萬 12ㄱ, 康 11ㄴ-12ㄱ, 국 17ㄴ>'

39)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周公이 처(周公이 처祀后稷) → 周公이 처에 后稷을
제사(周公이 처祀后稷) / 周公이 처에 后稷을 제사(周公 郊祀后稷) <萬
14ㄱ, 康 14ㄱ, 국 21ㄴ>'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효경언해』의 이본을 비교하여 이들에 드러나는 구결 및 언해 양상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이본의 특징과 이본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비교·분석한 이본은 만력 18년(1590)의 내사기가 있는 만력본, 강희 5년(1666)의 내사기가 있는 강희본, 『효경대의』의 난상에 언해를 쓴 종이를 붙여놓은 규장각본과 국립도서관본이다. 이 중 만력본과 강희본은 이미 안병희(1985; 1992)를 통해 각각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언해 양상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좀 더 세밀히 비교·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 이들 두 이본과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이본인 규장각본과 국립도서관본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이본이 보여주는 구결, 표기, 음운, 문법, 어휘의 변화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표기, 음운의 측면에서 일어난 변화의 경우는 만력본, 강희본, 규장각본의 양상이 같고 국립도서관본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구결, 문법, 어휘의 경우는 강희본에서 변화가 일어나 규장각본이나 국립도서관본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번역의 관점에서 ‘새로운 언해’는 내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며 이것이 주로 문법의 변화에서 확인된다고 볼 때, 규장각본이나 국립도서관본은 ‘새로운 언해’가 아니라 강희본의 언해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들 언해에서 드러나는 표기나 음운의 양상을 통해 이들이 필사된 시기가 19세기 후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기나 음운의 양상도 규장각본은 강희본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립도서관본만이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음운에서 제1음절 ‘의’ 변화와 ‘>ㅏ’의 변화와 같은 18세기 중반 이후 일어나는 ‘의’ 변화나 18세기 이후 일어나는 ‘ㅅ, ㅈ’ 아래에서 ‘y’계 상향이중모음이 구별되지 않아 나타나는 혼란의 모습, 문법에서 처격조사가 ‘-의’로 교체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국립도서관본은 강희본의 언해를 옮겨 적은 것이지만, 표기나 음운의 양상을 통해 그것이 필사된 시기가 19세기 후반 이후라는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孝經大義』 국립중앙도서관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산 古 1236.
- 『孝經大義』 규장각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中 1063, 奎中 1064, 奎中 1065, 奎中 1066, 奎中 1070, 奎中 1120, 奎中 1123, 奎中 1129, 奎中 1771.
- 『孝經諺解』 강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 1328 2.
- 『孝經諺解』 만력본. 尊經閣 소장, 『朝鮮學報』 27, 영인.
- 김해정, 「『孝經諺解』 研究」. 『論文集』 8, 우석대학교, 1986, 3-29쪽.
- 안병희, 「『孝經諺解』와 『孝經口訣』」. 『國語史資料研究』, 문학과 지성사, 1992, 462-473쪽
(안병희, 「『孝經諺解』와 『孝經口訣』」. 『역사언어학』, 전예원, 1985를 재수록).
- 여찬영, 「언해서 『효경언해』의 일 연구」. 『한국말글학』 20, 한국말글학회, 2003, 99-125쪽.
- _____, 「『효경언해』의 번역비평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27, 언어과학회, 2003, 197-222쪽.
- _____, 「『효경언해』의 원문에 대한 연구」. 『어문학』 84, 한국어문학회, 2004, 99-122쪽.
- 옥영정, 「『孝經』 언해본의 판본과 계통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1년도 제3차 국내학술회의 <孝經과 孝經諺解의 再照明> 발표문, 2011.
- 이기문,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1998.
- 이재영, 「朝鮮時代 『孝經』의 刊行과 그 刊本」. 『서지학연구』 38, 2007, 323-346쪽.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효경언해(孝經諺解)』의 이본을 비교하여 이들에 드러나는 구결 및 언해 양상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이본의 특징과 이본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비교·분석한 이본은 만력 18년(1590)의 내사기가 있는 만력본, 강희 5년(1666)의 내사기가 있는 강희본, 『효경대의(孝經大義)』의 난상에 언해를 쓴 종이를 붙여놓은 규장각본과 국립도서관본이다. 만력본과 강희본은 각각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들 이본과 규장각본, 국립도서관본에 대한 비교·분석은 지금까지 없었다.

표기, 음운의 측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 만력본, 강희본, 규장각본의 양상이 같고 국립도서관본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구결, 문법, 어휘의 경우는 강희본에서 변화가 일어나 규장각본, 국립도서관본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규장각본은 강희본의 언해를 가능한 한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지만, 국립도서관본은 강희본의 언해를 옮겨 적으면서도 필사시기 당시의 표기 및 음운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도서관본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을 통해 그 필사시기가 19세기 후반 이후라고 추정할 수 있다.

투고일 2012. 1. 18.

수정일 2012. 2. 10.

게재 확정일 2012. 2. 21.

주제어(keyword) 『孝經諺解』(*Hyogyŏng ōnhae*), 만력본(a version printed in 1590), 강희본(a version printed in 1666), 규장각본(different versions of Kyujanggak's collection), 국립도서관본(a version of the National Library's collection)